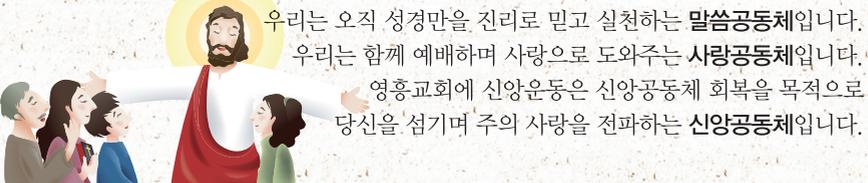




**십자가** 속에는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당신을 영흥교회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흥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입니다.  
 영흥교회는 행복한 예배자들을 위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 선교의 비전과 삶의 회복을 위한 **나눔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영성회복을 위한 **믿음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실천하는 **말씀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랑공동체**입니다.  
 영흥교회에 신앙운동은 신앙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당신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흥교회 위치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7-5  
 대표전화 : 471-7822,8922 / FAX. 472-3967  
 홈페이지 : [www.youngch.or.kr](http://www.youngch.or.kr)

### 영흥교회 예배시간

새벽기도	1부	5:00	시온성전
	2부	6:00	본당
주일 낮	1부	7:30	본당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2:30	본당
삼일밤	오후	7:00	본당
금요심야	오후	9:00	본당
유치부	주일	11:00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11:00	시온성전
초등부	주일	11:00	초등부실
중고등부	주일	9:00	중고등부실
청년부	주일	9:00	청년부실

영흥교회가 전하는 행복이야기

# 살구나무

아른의 썩난 지팡이, 성막금촛대 등잔이 살구꽃 형상, 새 생명과 깨어남의 뜻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소중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정성으로 준비했던 모든 어린이와 지도교사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찬양대회 대상 유년부 울동팀

- 생명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2p
- 영흥소식 『성경퀴즈대회/세례식』 7p
- 쑤니의 스케치북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8p
- 땅끝까지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땅, 인도』 10p
- 목회 칼럼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14p
- 마르다의 밥상 『그 여덟번째 이야기, 오병이어』 15p
- 믿음생활faq 『참 신앙은 무엇인가?』 18p
- 나의 QT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라미순 권사 22p
- 세례간증 『서미경/진영재/최경희/이정민/손주형』 24p

2013년 6월호

• 매체명: 살구나무 • 발행인: 김성택 • 발행일: 격월 13-3호 • 발행처: 영흥교회 • 편집인: 문서선교부  
• 제작/디자인: 호산나미디어 • 문의: 031-471-7822 www.youngch.or.kr

생명의 말씀 김성택 영흥교회 담임목사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본문 말씀 | 여호수아 14:6-15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여호수아 14:6-15**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직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 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직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옛날 남진의 “저 푸른 초원위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살고 싶은 꿈을 노래로 불러서 히트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들던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것은 노래처럼 순수한 꿈을 꾸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꿈을 가지고 산다면 사람은 인생을 사는 맛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꿈이 없다면, 꿈을 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씀합니다. 85세의 나이에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85세의 나이가 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건강이나 장수하는 꿈이 아니라, 청년 때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다. 젊은 시절의 꿈이 있었는데, 그 지난날의 꿈을 85세의 나이에도 꿈을 이루고자 노력장을 과시하며 꿈을 이루는 갈렙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갈렙이 지난 날의 꿈을 잊지 않았고,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했으며, 갈렙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비전이 무엇이었는데? 갈렙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 첫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85세의 나이에 과거를 회상하는 갈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년 전 갈렙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네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정탐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지혜있고 똑똑한 사람을 12명을 선발을 했고, 그 정탐꾼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좋은 땅으로 곡식과 과일이 넘쳐나는 땅이었지만, 출애굽의 백성들이 정복 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는 거짓이 아닌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보고를 받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가나안을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아우성 칠정도의 현실적인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의 보고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버리지 않는 보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보고 하기를 하나님께 충성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은 건장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아무리 확실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 꿈을 조롱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을 사막을 같이 걸어왔지만, 꿈의 목전에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꿈은 이를 수 없다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에게 돈이 없다". "나는 능력이 안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이 것이 두렵고 어렵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했던 것처럼

꿈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향해 소리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꿈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갈렙은 사람들이 꿈을 버리라고 소리쳤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포기했지만 갈렙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꿈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는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 **둘째. 꿈을 위해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은,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정탐을 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의 보고를 할 때에 출애굽의 60만의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보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정탐의 보고를 했 던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들은 우리의 밭이라고 보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변화 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성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사람들은 꿈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 말하면서 안 되는 것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동의 운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운명으로 바뀐 것은 그의 마음이 성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성실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싸우고 신앙으로 이기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시편 78:72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를... 성실함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갈렙처럼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의 자손들을 축복을 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 셋째. 온전히 충성해서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8-10, 14)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에,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충성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온전히 충성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조금도 변하거나 뒤집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갈렙의 충성은 온전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온전하게 충성을 했는가? 얼마나 확실하게 충성을 했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낀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 별로 나누어 가지려고 분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할아버지입니다. 지팡이 잡고 다니고 기력이 쇠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갈렙은 여호수아와 어깨를 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45년동안 평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경험한 백성들의 원로 중에 원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갈렙이 기침한번 하면 가나안땅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85세의 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갈렙의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이때 한말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민 14:22-24

22)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결단코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벱락같은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한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는 지엄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갈렙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갈렙이 정탐하였던 그 땅으로 갈렙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축복을 했습니다. 45년동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정탐하면서 보았던 그 산지를 갈렙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 그 땅, 그 하늘을 45년 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온전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흥 소식

**세례, 학습세례 (3월31일), 유아세례, 입교 (5월 5일)**

영흥교회의 새로운 자라미 된 세례식! 결혼식 전날 밤 짬뽕 먹고 통통 부은 눈으로 신부화장 해서 보기에도 민망한 결혼사진을 남겼어도 다시 결혼식 하고픈 맘은 안 들었는데, 세례식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기자의 마음을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준비한 간증문을 읽으며 함께 눈시울 적신 감동적인 순간들을, 세례 받는 당사자도 함께 한 우리들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경퀴즈대회 (4월 21일)**

일년에 한번 말씀을 달달 외우다 못해 잘근잘근 씹어먹도록 해주는 성경퀴즈대회가 올해도 청년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우리와는 뇌 구조가 달라 옆구리만 찢러도 말씀이 줄줄 나오시는, 이제는 더 이상 참가지자로 둘 수 없다. 출제위원으로 모시라는 압력을 매 해 받고 계시는 광명분 권사님의 활약이 돋보인 3여선교가 영예의 1위 기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기관이 더욱 더 분발하시어 이변을 연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찬양 경연대회 (5월 12일)**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의 찬양이라 그런걸까? 아이들의 찬양은 어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화음은 비록 잘 맞지 않더라도, 박자는 살짝 놓칠지라도 아이들의 목소리만으로 코끝이 찡해지고 주책맞게 눈가가 빨개져 누가 볼까 얼른 흠쳐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줄 압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쑤니의 스케치북

# 엄마 오늘 교회가는 날이에요?

글 | 장은혜 관찰 취재 | 민은순 관찰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시작하며 내 안에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수한이는 눈물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며 울기를 잘 하는데, 전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잘 따라와 주지 않으면 화내고 겁주기도 하면서 언제나 전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눈물이 많은 것 같아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놓고도 걱정하기 일쑤인 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꼭 맞는 아이를 맡시기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깨닫고 나니 수한이의 울음도 이제는 힘든 육아가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밥 먹는 중에 “엄마 오늘 예뻐요” 이렇게 예쁜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늘 야단만 치던 엄마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니 수한이의 모습 속에 엄마의 다른 모습이 비쳤나 봅니다. 육아는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많은 희생과 인내를 뛰어넘을 만큼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1.**

어느 수요일 예배 후 집에 가는 길에 아주머니 한 분이 조금 크다 싶은 치와와 강아지를 안고 가셨습니다. 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수한이에게 제가 "수한아 저기 강아지 온다"라고 말하니 수한이가 강아지를 보고 "엄마 저건 강아지가 아니라 캥거루잖아요."



**에피소드 2.**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에 대해 배우고온 수한이가 "엄마 오늘은 어버이날이요~" 그래서 제가 "응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그랬더니 수한이가 "그런데 엄마 지난번 어린이날에 왜 자랑 수민이한테 꽃 안 달아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동안 내가 세운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수한이와 수민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부모님들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길 감히 소망해 봅니다.

수한아 수민아 오늘도 교회 가자!!!~~~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축복하시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땅끝까지

#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땅, 인도



더 나은 내세를 기대하며 갠지스 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인도인

## 1. 복음을 듣지 못한 600여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민족

인도의 영토는 남한의 33배정도의 크기로, 28개의 연합 주와 7개 연합 영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억 명에 이르며 인구 중 74.3%가 힌두교, 14.2%의 이슬람교, 5.8%의 기독교 그 외 시크교, 바하이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개가 넘는 고유 종족 집단이 존재하

는 만큼 세계에서 민족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이며 힌디어와 영어 등 22개의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인도는 인더스 문명의 발원지이자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의 발원지기도 합니다. 8세기경 이슬람이 유입되었고 16세기 이후 이슬람의 꽃인 무굴제국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로 인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1948년 독립을 이루었으나 종교 간의 갈등과 신분에 따른 빈부격차 등 민족 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의 순교지이자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사역지였던 이 땅은 현재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600여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습니다. 대다수의 힌두교인들은 강한 종교성을 갖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서는 수많은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북동부에 흐르는 갠지스 강가는 이들의 강한 종교성을 대표적

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들은 갠지스 강물로 목욕을 하면 죄와 허물을 씻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세를 기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갠지스 강은 이들에게 정결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갠지스 강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곳 바로 옆에서는 죽은 시체를 화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화장 후 그 시체가 갠지스 강에 뿌려지면 일생동안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해져 다음생애에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갠지스 강의 양면의 모습 (시체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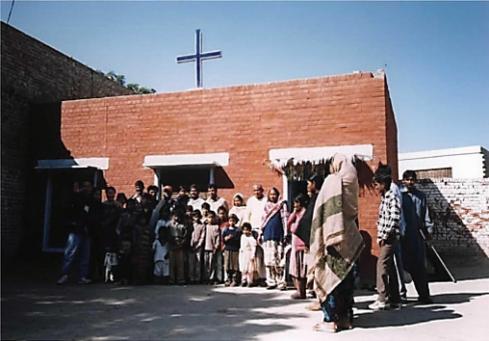


1억 8천명의 무슬림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중 두번째)

## 2.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무슬림이 있는 민족

한편 북인도에는 힌두교에 가려진 1억8천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 수는 약 16억의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북인도의 무슬림들은 힌두교로 인해 인도 내에서 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는 힌두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북인도의 무슬

림들은 상처 받고 억압 받으며 정부의 통치를 반대하는 시위 등으로 인하여 인도 정부로부터도 소외받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힌두교도와 함께 살면서 오랜 기간 힌두교와 충돌을 겪다 보니 오히려 무슬림이란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북인도 무슬림은 대부분 가난하고 정부의 혜택이나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해 열악한 노동직이나 낮은 임금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교회

### 3.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

인도에는 8천만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도교회들은 남인도에 집중되어져 있고 또한 힌두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역사적으로 뿌리깊게 박혀있는 힌두교와 무슬림의 갈등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죽어 있는 듯한 이 땅에, 믿음을

지킨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예비해두셨고 인도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순교를 각오한 헌신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 잠무카시미르 주는 파키스탄과 접경하고 있으며 지금도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시위와 테러가 끊이지 않는 세계 3대 분쟁지역 중 한 곳입니다. 한 주 안에서 여러 민족과 종교가 공생하는 곳으로, 크게 불교를 신봉하는 레라다 인도의 작은 아랍 카시미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인이 대부분인 잠무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0.01%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교회에서 이미 히말라얀 벨트와 카시미르, 펀잡 주 등으로 각각 500여 명씩 두 교회 내의 단체에서만 1,000명 가까운 사역자를 파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북인도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신 T 목사님 가정은 3대째 복음을 외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이아마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롬9:17)

### 4.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제 인도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시작되어 인도 전역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도교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무슬림을 향한 분열과 두려움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지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이전과 비교 할 수 없는 큰 믿음을 부여하시고 분쟁과 테러의 고통, 생명의 위협에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그리스도로 인해 뜨거우며,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미 연합한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갠지스의 온 강물을 덮고 인도 온 땅을 덮어,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의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를 위한 기도제목**

1. 인도 영혼들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된 우상, 분쟁으로 인한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2. 이제는 인도교회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하고 권세 있는 교회로 일어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 현지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어져서 인도교회가 부흥 되도록!

글/취재 이미미 집사

목회칼럼

#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글 | 담임목사 김성택

지난주에 있었던 패밀리기도회 마지막 날...!

기도를 끝날갈 즈음 서로서로 포옹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내 딸을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떨고 있는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자녀를 힘껏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들을 애인처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엄마  
아빠를 향해 두 손을 크게 벌리고 와락 안겨있는 딸의 사랑스러운  
엄마에 귓가에 엄마 사랑해요 속삭이는 아들의 기도소리



패밀리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쁜 삶에 이끌려 한올타리에서 지내왔었다.  
우리는 잊고 있었다. 주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하염없이 기도해 보았으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축복되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하염없이 축복하는 시간이 그치지 않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어봤으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아들과 딸의 모습... 그것은 아름다운 한가정의 모습이리라!

교회의 성전은 텅비고... 모든 성도들이 돌아갔다.  
그 성전 안에 넘쳐났던 가족들은 혹시나 그들의 사랑은 모두 챙겨들 가셨을까?

기도회를 마치면서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기도...!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 여덟번째 이야기, 오병이어 **마르다의 밥상**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는 삶 살게 하소서”

취재 | 박정란 집사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막6:32)

“어머니! 어머니! 예수님이 우리마을을 지나가신데요~!”

“아들아! 끼니 때가 됐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빨리 가서 그분을 뵈고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시장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단다. 여기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싸줄테니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먹도록 해라”

소년은 어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많은 무리를 쫓아 나선다.

오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 그토록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말씀을 듣는다. 소년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마치 어린양을 이끄는 목자 같다. 선한 얼굴과 인자한 음성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소년은 저도 모르게 흥얼거린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어느덧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어미와 함께 따라온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말쑤를 하시면서도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예수님... 측은해하고 안타까와 하는 예수님의 표정이 소년의 눈에 들어온다. 곧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명하시고 제자들은 부지런히 움직인다. 아마 많은 이들에게 나눠 줄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마침 소년은 어머니가 싸주셨던 도시락이 생각한다. 친구들과 나눠먹으라며 넉넉히 싸주셨는데...!

“저기요~! 제가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마리가 있는데 나눠 드실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년을 보고 비웃는다. “예끼 이놈! 그거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나눠 먹누?” 제자들마저 소년의 말을 가벼이 여기며 그 앞을 돌아서자 소년은 시무룩해졌다. 그때다! “소년의 것을 이리로 갖고 오도록 해라” 예수님께서서 소년의 떡과 물고기를 가져가시더니 축사를 하신 후, 오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다.

와우~~나누고 나눠도 끊임없이 떡이 나온다! 물고기가 남는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다시 가득 차다니!! 소년이 신기하고 놀라운 얼굴로 예수님을 올려다보자 예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파스한 손길로 그의 머리를 쓰담아 주신다. “잘했다~~”

얼마 전 셀모임 시간에 주님이 주신 자신들만의 특별한 은사에 대해 나눠볼 기회가 있었다. 다들 수다스런 아줌마들이라 얼마나 많은 자량을 할까 내심 기대 반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걱정 반 하며 문제를 던져보았다. 그런데 그 말 많던 아줌마들이 지퍼라도 채운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서로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닌가... 조용한 분위기가 어색했는지 누군가가 먼저 고백한다.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저두요” “나두” “뭘 잘 하는게 있어야지요”

처음에는 우리 셀원들이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누다보니 은사란 작고 소박한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것이라 오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에요. 집사님은 음식을 잘 하셔서 우리 셀원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집사님은 유쾌한 웃음과 말씀씨로 셀 예배를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도 소년의 떡과 물고기가 많다고,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자 떡과 물고기는 그 어느 것보다 값진 생명의 떡이 되었다. 우리 생각에는 보잘 것 없고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많다. 그 작디 작은 하나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되어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나만의 작지만 특별한 것!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과 상식,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는 삶 살게 하소서~



### 쉽게 만들어 맛있게 나누는 오병~

**\* 재료 :** 두시간이상 불린 찹쌀, 소금, 설탕, 치차가루(강황), 복분자액기스, 녹차가루, 약식용 흑설탕과 간장



- ① 불린 찹쌀에 소금, 설탕을 넣고 밥을 지어요.(일병)
- ② 불린 찹쌀에 소금, 설탕, 고운 노란색이 나오도록 치차가루 조금만 넣고 밥을 지어요.(이병)
- ③ 불린 찹쌀에 소금, 설탕, 붉은빛이 살짝 돌도록 복분자액기스를 조금만 넣고 밥을 지어요.(삼병)
- ④ 불린 찹쌀에 소금, 설탕, 연한 연두빛이 나도록 녹차가루를 조금만 넣고 밥을 지어요.(사병)
- ⑤ 불린 찹쌀에 약식용 흑설탕, 간장을 넣고 밥을 지은 후 참기름 살짝 뿌려주세요.(오병)
- ⑥ 정성껏 만들어진 찰밥들을 각각 컵케익용 호일에 담아 예쁜 접시에 셋팅해서 손님상으로~



**[Tip]** -----

- \*밥은 반드시 압력솥을 이용하시고 컵호일에 담은 후 토핑으로 슬라이스한 대추나 건포도 잣,익힌 밤을 조각 내어 올리셔도 좋습니다.
- \*많이 만들어 한 김 나간 후 바로 냉동 시켰다가 나들이 갈때 갖고 나가보세요. 자연해동되어 시원한 느낌이 대박~!
- \*오병과 조미김은 찰떡궁합! 김에 싸 드시면 더 맛있어요.



믿음생활 faq



# 참 신앙은 무엇인가?

취재 | 문중순 성도

예수님은 신앙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마 2:5, 10:52 눅 5:20 ; 7:50), 충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다(마 6:30). 믿음이 없는 곳에 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분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또한 그것을 주신다.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은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모험이 아니다. 신앙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고 깨끗케 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사는 데에도 역시 신앙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도 우리는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믿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일일이 다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지금’이 신앙으로 행동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때인가?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 '구원하는 신앙'과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주는 신앙'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신앙의 척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시련을 주실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우들은 이 진리를 증거해준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후 12:7-10). 위대한 '믿음의 장(章)' 히브리서 11장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큰일들을 이룬 신앙의 용사들을 소개한다.

그 신앙의 용사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고문과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거나 돌로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상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만큼 강했다. 그 박해를 받은 자들은 장차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참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온갖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겸손과 순종과 성숙을 의미한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 건강, 인기, 명예, 그리고 물질적 부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갈 5:22,23). 그러므로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다. 즉, 그분은 우리가 깨끗해져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이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좋은 길을 찾아 우리를 인도하신다.

참신앙은 "세상과 사탄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장차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 [고난을 받아들이는 신앙]

사드라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단 3:17)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들은 곧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8)라고 말했다.

이 세 사람은 그들을 구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도, 일의 결과를 철저히 그분의 손에 맡겨드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결과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난에서 건짐 받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신앙일 수 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에 맞서면서도 하나님을 지지하여 힘을 얻는다.

그는 “하나님! 저의 계획, 저의 미래, 저의 사역, 그리고 저의 일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것들을 취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저의 이웃의 유익과 저의 성

숙을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계획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는 그분이 그분의 기쁜 뜻대로 그의 계획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재정적 압박에서 구해주시고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참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한다.

### [나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가?]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탁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내 아이들이 어릴 적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에는,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계속 부탁하는 단계를 거

칠 수는 있다. 그러나 늘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단계를 지나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도우신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 즉, 우리는 언제나 내 문제에만 몰두하는 미성숙한 단계에서 벗어나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의 신앙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구할 것이고 그분은 내게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힘은 그만큼 강해진다.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았다. 내가 그분께 구했던 것을 그분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성장했으므로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넷 오크, 기독교 교양**  
(godpeople.com 인용)



나의 QT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며”

글 | 라미순 권사  
취재 | 최혜경 집사

#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본 문] 창세기 48:12~22

저는 Q,T를 할때 본문 말씀을 소리내며 또박 또박 2번을 읽고  
눈으로 천천히 1번을 읽습니다.

## [목 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에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내 삶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 변화가 있게 하시므로 그 뜻대로 살게 하소서.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안고 사는 요셉.

창 37장, 형들의 음모로 애굽으로 팔려가야했던 사건. 창 39장, 보디발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사건. 창 40장, 옥에 갇혀 꿈을 해석하게 되는 사건. 이 밖에도 요셉은 모든 사건을 만났을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였다.

그러했던 요셉이 자신에 자녀들에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에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앞서 정욕과 혈기의 왕성함으로 많은 것을 자신에 생각대로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 자신에 고백처럼 험한 세상을 살았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없고 약하고 병들어 초라한 모습,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적 용]**

야곱을 통해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약한 자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역사해주심을 알게 하셨다. 또 요셉을 통해 남들에 문제나 객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연도 하지만 내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모에 욕심과 세상에서 보는 시선, 세상에서 기준 삼는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나의 예로는 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장난 삼아 냈는데 킬킬 합격하였다. 아이는 좀더 다른 곳도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지만, 나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란 이유로 그 곳을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업무에 쫓겨 겨우 주일만 성수하면서 신앙생활에 게을리지는 아이를 보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작은 회사일지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먼저 둘 수 있는 회사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며 회개를 하였다.



그렇다!! 우리는 남의 문제는 객관적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조연하면서도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견해로 보므로 인해, 요셉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늘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께 함게 하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그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세레간증문

# 세레간증문

서미경, 진영재, 최경희, 이정민, 손주형

## 사랑교구 서미경 성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희망이 생겼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만 생겨났습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중에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남편마저 신장투석을 하는데도 항상 웃으며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

고 계신 것에 진정 감사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며 나는 예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 왔고 가족이 모두 함께 믿기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특별하게 주님이 선택한 친구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겠지 하면서 내심 부러워하였습니다. 몹시 힘들고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던 어느 날 꼭 교회에 가보라는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 혼자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다녔을 때 저는 갑상선암 선고를 받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세상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불행이 오고 또 오다 못해 암까지 나에게 왔다는 사실이 정말 나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고 남한테 배려하면서 살아가려고 늘 애쓰는데 왜 나를 싫어하실까 했습니다.

수술하고 다음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담임목사님이셨습니다. 난 너무 놀라서 “웬일이세요?”라는 말을 인사대신 여쭙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안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주 안 나왔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왜 안 나왔니? 아파서 못나왔구

나"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통해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나왔고 웬지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니 갑상선암도 주님이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더 큰 암일 수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쉬운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게 해 준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금방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들어 주실꺼라구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교구 진영재 성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삶의 소중함을 모르던 저를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삶의 소중함을 모르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 살아가는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저를 아버지 품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학습세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따라 절에 다니면서도 늘 허전한 마음이었고 시집살이와 두 아이들을 키우며 심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치료 하였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며 매일 자살할 일만을 생각하며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 저를 죽이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는 저에게 많은 시간과 사랑을 주었지만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위주로 생활을 해왔으며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심할 정도로 집착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족을 협박했고 우울증 치료약과 술에 의지하며 매일 매일을 어떻게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응급실에도 다섯 번이나 실려가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한단 말까지 들었습니다. 15일만에 깨어난 저를 선생님과 가족들은 놀라고 대단하다며 다시는 이리 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살아있는 제가 너무 고마워 저만을 주시하며 제 기분만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저를 위해 귀농을 하자고 하여 지금 사는 석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후 너무도 행복하고 우울증도 많

이 나아지고 사는 것도 행복하다 여기며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저는 다시 무너지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던 저에게 물질적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의 욕심과 배신으로 또 다시 상처와 좌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남편 따라갈 생각에 날짜까지 정해두고 약을 사기도 하고 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책임하게 두 아이를 남기고 죽으려 하는데 그게 엄마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죽자니 두 아이들의 상처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울면서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살아가는 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두 아이의 상처를 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고 기도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교회 가기를 권해오신 이숙경 권사님을 따라 기도원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원로목사님의 말씀에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느꼈고 목

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녹아 내리는 듯 하였으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제 마음에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고 지금은 주님 품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더 이상 악몽도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며 두 아이도 변한 저를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사랑교구 최경희 성도



####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하나님과의 만남”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그런 내 마음을 알아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왜 세상 사람들 중에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건지... 세상의 고민을 다 끌어 안고 살던 저에게 잘 알

고 지내던 언니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권유를 받았는데 매번 갖은 핑계를 대서 피하거나 혹 같이 갈 약속을 했다가도 꼭 다른 일들이 생겨나서 못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언니와 약속을 하는데 웬지 꼭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은 내 목소리를 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니 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정히 대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예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 한 두 번 외뵈었을 때에는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졌는데, 전혀 졸리지도 않았고 목사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저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들려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고민이 생기면 다음 예배 설교 말씀 중에 해답을 알게 되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고도 색다른 경험을 하고 나니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음엔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서 가더라도 비몽사몽하여 설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하면서 세상의 잣대로 제 자신을 평가하면서 잘 났다고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던 저에게 부흥회에서

의 특별한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혹의 목적을 숨기고 저에게 다가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맞설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의 말에 힘을 달아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려 주실 것을 믿기에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후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마다 원망으로 일관하던 나의 일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도 관심이 가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으며, 나의 힘듦으로 핑계 대면서 나 몰라라 하던 일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나눔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이정민 학생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제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강요에 의해 다니게 되었지만 커가면서 아침에 엄마가 깨워주시지 않아도 제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학습교육과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몇 가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저의 아빠께 주님을 알릴 것입니다. 저희는 엄마와 저, 동생 이렇게 세 식구

만 교회를 다닙니다. 오후예배 때 가족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께 “나도 꼭 우리아빠 전도해서 가족찬송 할꺼야”라고 자주 이야기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어리다는 핑계로 아빠께 주님을 알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빠가 주님을 믿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알릴 것입니다.

두번째는 오후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끝나 집에 갈 생각만 했습니다. 엄마의 제안에 의해 오후예배를 가끔 참석하긴 했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께 먼저 오후예배를 드리자고 부탁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좋고 찬양을 부를 때 만이라도 웃으며 기뻐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든 중고등부예배와 오후예배는 꼭 참석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저는 항상 성경을 제쳐놓고 제가 원하는 일만 하기 바빴습니다. 주변 분들과 선생님의 권유에도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에 성경을 다운 받고 틈틈이 시간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 생활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목표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제가 원하는 일,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제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의사소통 통로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배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모두가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중고등부 손주형 학생**



**“주님께 의지하여, 힘들 땐 기대고 즐거울 때도 모든 일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마

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다녔고, 가기 싫을 때는 저를 달래기 위해 주시는 용돈까지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고난주간이던 주일날 본 영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무심코 죄를 지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이 저로 인해 크나 큰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가대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한국 한국 부를 때마다 진심을 다 하였고 더욱 더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았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학습세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많이 자라지 않아서 소심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을 쌓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소심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번에 세례 받을 때에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힘들 땐 기대고 즐거울 때에도 주님께 모든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회 소식



## 1) 중고등부 부모님 초청 연합예배 / 학습세례식

• 일 시 : 6월 2일 오전 9시      • 장 소 : 영흥교회 본당

## 2)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

• 일 시 : 6월 30일 오전 11시      • 장 소 : 영흥교회 본당

## 3) 작음음악회

• 일 시 : 6월 30일 오후 3시      • 장 소 : 영흥교회 본당  
 • 행 사 : 임마누엘/할렐루야 성가대, 글로리아 몸찬양단, 에스더중창단  
 어린이찬양팀, 부부성가대, 난타, 오케스트라 공연 등

# 캠페인

## 함께 지키는 에티켓

표어: 예배에 또 늦으셨다구요?!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

- 1 **헌금은 가정에서부터 준비해주세요.**  
 아차! 헌금봉투 갖고 오느길 까먹었다. 전도사님~아~임!  
 마음과 함께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 2 **교회차량 탑승자들은 동승하는 교인이 예배에 늦지 않도록 미리5분전 대기해 주세요**  
 어떡하줘~?! 추우니까 조금 더 집에 있다가 나갈래~  
 요 설것이까지만 끝내고 나가야줘~ 아니아니 아니되요!
- 3 **10분전에 오셔서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지하철탑승시간보다 더 정확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 4 **들어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착석해주세요.**  
 은혜는 제일 많이 받고 싶지만 미리부터 앉아 있는 건 싫어 일단  
 가방부터 던져~~! 아니아니 아니되요!
- 5 **핸드폰은 잠시 꺼주세요.**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들리는 빠리리~ 벨소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어요~

복음을 들고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이땅에 갑니다.

# 갑시다, 완전한 소망을 전하러



행복을 누리는 방법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가요 여러분-

## 2014 World Mission

어려분~  
기다리게요~

신청방법: 신청서, 서약서, 적금통장

